

# 사업회 소식

## 국민 3명 중 2명,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사업회에서 의뢰한 국민여론조사에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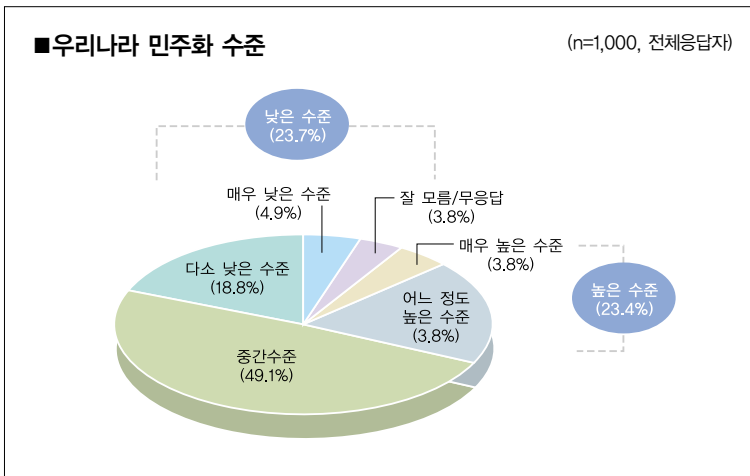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4명 중에 3명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0%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4.9%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4.9%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으로는 52.1%가 5.18민주화운동을 꼽았다.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기고 3 '민주주의 국민인식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 민주인사 29인의 생생한 구술기록 출간



연구소는 지난달 29일(수)부터 오는 12월까지 두 달 동안 한국 민주화운동 기초자료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 사업에서 사업회는 일본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동경대 명예교수, 이시자카 고우이치(石坂浩一) 릿쿄대 교수, 오오다 오사무(太田修) 불교대 교수와 함께 김대중, 박형규, 함세웅, 리영희, 백낙청, 김지하 등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공헌을 한 생존인사 29인을 직접 인터뷰하여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청취한 후 텍스트 자료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사업의 결과는 앞으로 연구와 출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조사자인 와다 교수는 오는 2010년 일본의 이와나미(岩波) 출판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일본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도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 사업회,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와 '시민교육 세계의회 한국 개최' 공동노력 양해각서 체결



사업회는 지난달 23일(목) 미국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사무총장 찰스 쿼글리)와 시민교육 세계의회의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단체가 합의한 양해각서에는 세계의회 개최를 위한 공동노력을 비롯하여 사업회가 한국과 아시아의 시민교육 거점 기관이 되는 것, CCE 출판물에 관한 무제한·무비용 사용권 인정, 인적·물적 교류, 연수 프로그램과 트레이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시민교육 세계의회'는 유럽평의회(47개국)를 포함한 전 세계 70개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시민교육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대규모 행사이다. 지난 2006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2007년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금년에는 모로코 이프란에서 열렸으며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열린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민교육 세계의회의 한국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교육센터는 물론 시민교육센터가 구축한 CIMTAS 네트워크 안의 국가들과 상호 교류하며,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시스템과 교재·프로그램 등을 저작권과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추가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 사업회 임원진, 유엔의 날 행사 참석

지난 9월 15일(월) 제 1회 유엔 국제 민주주의의 날 행사에 사업회 문국주 상임 이사와 이정옥 국제사업단장이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관 연구 조사의 일환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엔 민주주의 기금(UN Democracy Fund)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에 이어 유엔 DEF 사무 총장 롤랑 리치(Roland Roch)의 연설, 유엔 민주주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증진 사례가 발표되었고, 오후에는 민주주의 증진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활동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엔이 선포한 국제 민주주의의 날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15일을 국제 민주주의의 날로 선포하면서 올해 그 첫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 사업회 소식

## 국제사업단, 제 1회 세계직접민주주의회의의 참석



3개 대륙(유럽, 미주, 아시아)의 국민투표와 시민발안기구(Initiative&Referendum Institute)가 주관하고 스위스연방공화국과 유럽연합(EU)이 후원하는 '2008 제 1회 세계직접민주주의회의'에 사업회가 협력기관으로 함께 참석하였다. 스위스 아라우 주에서 지난달 1일(수)부터 4일(토)

까지 개최된 본 행사에는 이정옥 국제사업단장이 참석해 토론 진행과 패널로 참여하여 지난 6월에 진행했던 유럽직접민주주의 현장워크숍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라우 주 의회 의사당과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크게 <글로벌세미나 : 직접민주주의의 세계>, <공개행사 : 직접민주주의와 유럽통합> 그리고 <학술포럼 : 유럽의 직접민주주의-통합, 혁신, 환상과 이데올로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정계, 학계의 대표들과 함께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참가로 풍부한 사례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토대로 국제사업단은 세계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와 워크숍 개최, 교육자료 제작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전국 13개 지역에서 참석한 민주가족 등산대회

사업회는 지난달 11일(토) 충북 청원군 양성산에서 가을맞이 민주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등산대회에서는 여수, 목포, 광주, 전주, 부산, 마산, 대구, 충북, 대전, 충남, 춘천, 성남, 인천,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 488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민주가족의 화합을 보여줬다.



충북민예총의 문화공연으로 등산대회를 마무리한 이날 행사를 기회로 내년에도 민주가족들을 동반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 사업회 임직원, 연탄나눔운동 실천

사업회 40여명의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금), 서울 월계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배달해 주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참석했다. 이날 사업회 임직원들은 월계동 지역 10여 가구에 임직원들이 준비한 연탄 3,700장을 나르며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회는 앞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 공익 활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의 봉사를 실천할 것이다.



## 국제사업단, 일본 ODA개혁 시민사회포럼 참관



지난 9월 30일 도쿄에서는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 혁신을 계기로 일본 ODA 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ODA개혁 시민 사회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일본의 국제 협력 NGO 네트워크인 일본 국제협력 NGO센터가 주관하였으며 각계의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와 일본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제 사업단 연구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협력에 대한 일본 시민 사회의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업단 권대근 전문위원이 포럼에 참석했다.

일본의 시민 사회 진영은 공적개발원조 체제를 일원화로 특징지어지는 新 JICA의 출범을 일종의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ODA 분야에 대한 인권과 환경 감시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ODA 정책이 개발도상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일본의 ODA로 인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생존권 박탈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사업단은 포럼과 일본 시민 사회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한 일본 국제 협력의 현실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 임직원 대상 홍보마인드 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4일(금) 오전 10시부터 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살리는 홍보방안, 세가지> 라는 주제로 홍보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등 조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

## 교육사업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 서천 희리산자연휴양림에서 '2008년 교육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 태안군과 서천군 일원의 문화탐방도 겸하였다. 문화탐방에서 교육사업팀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느낌'이라는 주제로 문화 탐방지를 설정하였으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또 워크숍에서는 금년 한 해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내년도 사업계획과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그 결과는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